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朝鮮王朝宮中嘉禮床차림考  
- 1866年 高宗 明成后, 1906年 純宗 純宗妃 嘉禮同牢宴 -

金尚寶 · 李盛雨\*

대전보건전문대학 전통조리과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1991년 6월 17일 접수)

A Study on Wedding Feast Dishes in Gare Dogam Euigwae (1866, 1906)

Sang Bo Kim and Sung Woo Lee\*

Daejeon Medical Junior Colleg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Han Yang University

(Received June 17, 1991)

Abstract

To analyze wedding feast dishes of king and royal prince of Chosun Dynasty (1866, 1906), the author studied historic book Gare Dogam Euigwae, in which the wedding feast dishes of King and Prince in Chosun Dynasty were described.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study were as follows, 1. Dish materials used for wedding ceremony in the year of 1866 was same as that of the year 1749. 2. Dish materials used for wedding ceremony in the year of 1906 was quit different that of the year 1749. 3. Dish materials used for main table(宴床), second table(左挾床), third table(右挾床), and fourth table(面挾床) was the same as that of from the year 1651 till 1906. 4. Dish materials used for a small round table(初味), another table(二味), and the other table(三味) was the same as that of from the year 1749 till 1906. 5. A large boiled beef(大膳) and a small boiled beef(小膳) were in the year 1819 and 1906.

I. 서 론

필자 등은 「嘉禮都監儀軌」를 통하여 1651年, 1696年,<sup>1)</sup> 1744年, 1819年,<sup>2)</sup> 「御製國婚定列」를 통하여 1749年<sup>3)</sup>의 朝鮮王朝 宮中 嘉禮床차림을 分析 究明하여 보고한 바 있다.

本報는 1866年 高宗 明成后, 1906年 純宗 純宗妃의 혼례상차림을 「嘉禮都監儀軌」를 통하여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分析 究明하여 17세기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궁중 혼례 상차림의 흐름을 밝히고자 하였다.

II. 역사적 배경

1. 1866年 高宗 明成后 嘉禮

1863年 12月 哲宗이 승하 하자, 大王大妃 趙氏의 친교로 興宣君 리하응(李夏應)의 둘째 아들 명복(命福)이 12세의 나이로 高宗 즉위 후, 대왕대비 조씨는 垂簾聽政을 행하였다.

1866年 2月, 대왕대비께서는 수렴청정을 그치고 王에게 還正하고 3月 王은 15세의 나이로 민치록(閔致祿)의 딸을 왕비로 삼았다.<sup>4)</sup> 즉 1696年, 1744年, 1819年の 가례가 왕세자의 가례인 반면 1866年の 가례는 왕의

1) 金尚寶, 李盛雨,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1600年代의 宮中嘉禮床차림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5, No. 1, 1990.

2) 金尚寶, 李盛雨,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朝鮮王朝宮中嘉禮床차림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6, No. 1, 1991.

3) 金尚寶, 李盛雨, 御製國婚定例에 대한 分析的 研究,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5, No. 2, 1990.

4) 璿源寶鑑編纂委員會, 璿源寶鑑 III, 啓明社, 1989, pp. 743~744.

가례인 것이다. 1866年(高宗 3年)에 일어난 주요 국내 사건으로는, 5月 미국 범선 「서프라이스」호가 평안도 칠산부애 파선 漂到하였고, 7月 미국 상선 「제너럴서먼」호가 평양에서 軍民의 공격으로 불탔으며, 8月 프랑스 함대가 내침하여 양화진에 이르고, 10月에는 양헌수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파한 것으로서,<sup>5)</sup> 서양의 문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때이며, 아직 中國인 淸나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시기로서 朝鮮初의 宮中の 文化가 그대로 계승되었던 해라고 생각된다.

## 2. 1906年 純宗 純宗妃 嘉禮

1867년부터 1905年 사이에, 조선에서 발생한 사건을 몇가지로 요약해 보면, 1875年 8月 강화도 水兵 초지진 앞바다에 나타난 일본 군함 운양호 포격 사건, 1876年 2月 韓日修好條規조인, 1882年 4月 韓美修好條規조인 및 韓英修好條規조인, 5月 韓獨修好條規조인, 1884年 3月 淸나라와 仁川口淸商地界章程조인, 윤 5月 이탈리아와 韓義修好條規조인 및 러시아와 韓我修好條規조인, 1886年 4月 프랑스와 韓佛修好條規조인, 1892年 5月 韓澳修交條約, 1894年 7月 度量衡 개정, 1895年 8月 乙未事變, 9月 태양력실시, 1897年 10月 皇帝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를 大韓이라 고침(光武 1年), 1899年 5月 서울에 電車 운행, 9月 淸나라와 통상조약을 체결, 9月 인천 노량진간의 경인철도 개통, 1900年 7月 한강철교 준공으로 京仁線 全線이 개통, 1901年 10月 흉년으로 인하여 安南米를 수입, 1902年 1月 이재각을 特命大使에 임명하여 영국 빅토리아여왕 대관식에 파견, 3月 경성 인천간에 전화가설, 1904年 2月 일본함대가 인천에서 러시아 군함을 격파, 8月 제 1차 韓日協約성립, 1905年 11月 을사보호조약(제 2차 韓日協約) 체결, 11月 민영환, 조병세, 홍만식, 自決<sup>6)</sup> 등이다.

조용하게 살던 朝鮮民衆에게는 40여년 동안에, 한꺼번에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나라를 빼앗기는 엄청난 사건들을 맞이하여야 했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난 그 다음해인 1906年 1月 24日 純宗이 尹妃를 繼妃로서 맞이하였다. 純宗은 33세 尹妃는 14세였다.<sup>7)</sup>(이 때의 純宗은 太子로서 가례 다음해인 1907年 7月 純宗皇帝 즉위)<sup>8)</sup> 純宗이 첫번째 妃인 純明皇后와의 가례는, 純宗의 어머니인 閔妃(高宗의 妃)의 특별한 총애로 역대 궁중의 가례 중에서도 가장 호화스러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가례에 사용되는 布帛과 器皿 등은 전부

淸國에서 가져오고 이불만도 500을 넘었다고 한다. 純明皇后는 1904年 돌아가셨다.<sup>9)</sup>

1895年 8月 乙未事變으로 閔妃가 살해되고, 따라서 純宗의 親母가 없는 가운데에서, 또한 을사보호조약으로 國運이 다한 가운데에서 1906年 거행된 嘉禮는, 國王이며 私人으로서는 시아버지인 高宗皇帝로서는 마음이 상당히 착잡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高宗은 아직 어린 太子妃인 尹妃를 위하여 布帛을 위시하여 각종 금은보석을 하사하였으며, 妃, 嬪, 貴人들도 매일 애용하고 있던 보석 등을 앞을 다투어 헌상하였다 한다.<sup>10)</sup>

## III. 嘉禮床차림

### 1. 1866年 王嘉禮 床차림

圖 1에서 圖 9까지는 1866年 高宗 明成后의 王嘉禮에서의 床차림을 圖로 나타낸 것이며, 이중 圖 1에서 圖 7까지는 同牢宴 所用床차림이다. 圖 8, 9를 제외하고는 1749년에 제정한 「御製國婚定例」의 王嘉禮 同牢宴 所用 床차림<sup>11)</sup>과 같다. 다만 圖 4의 果盤 10器가 「御製國婚定例」에서의 果盤 8器보다 2器가 많은 것은 饌品 中の 正果 1器(天門冬正果, 冬瓜正果, 生薑正果)를 天門冬正果 1器, 冬瓜正果 1器, 生薑正果 1器인 3器로 한 까닭이다.

### 2. 1906年 皇太子嘉禮 床차림

圖 10에서 圖 24까지는 1906年 純宗 純宗妃의 皇太子嘉禮에서의 床차림을 圖로 나타낸 것이며, 이 중 圖 10에서 圖 19까지는 同牢宴 所用 床차림이다. 1866年 床차림과 달리 1906년의 床차림이 「御製國婚定例」의 王世子嘉禮 상차림과는 약간 다른데 이는 上記한 바와 같이 환경적 요인과 시대적 요인(고종皇帝는 조선왕조의 첫번째, 황제이며, 皇太子도 첫번째 皇太子 인검)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表 1과 2에 제시한 1651년부터 1906년까지의 朝鮮王朝 宮中 嘉禮 床차림의 찬품 비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床차림의 다양화를 알 수 있으며, 또한 圖 10에서 24까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음식을 고임높이가 王世子 가례인데도 불구하고 1866년의 王嘉禮에서 보다는 훨씬 높은 1尺으로 하고 있으며, 반면에 饌品 한 종류에 대한 가지수가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5) 上同

6) 上同, pp. 744~766.

7) 金命吉, 李王家 樂善, 中央日報, p. 238.

8) 塘源寶鑑編纂委員會, 1989, p. 767.

9) 金命吉, p. 238.

10) 上同, p. 238.

11) 金尚寶, 李盛雨, Vol. 5, No. 2,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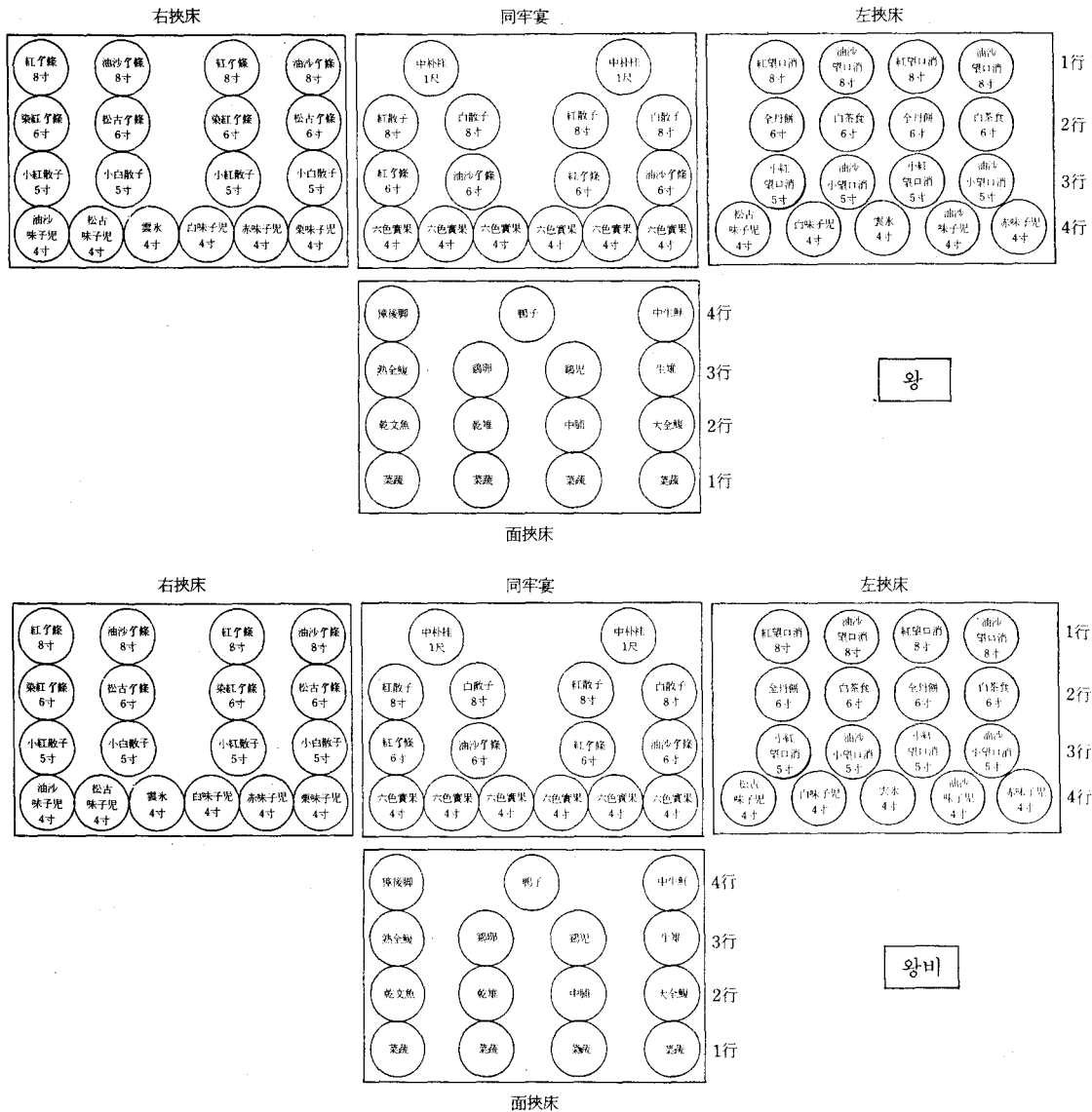


圖 1. 1866年 王嘉禮에서의 宴床, 左挾床, 右挾床, 面挾床(同牢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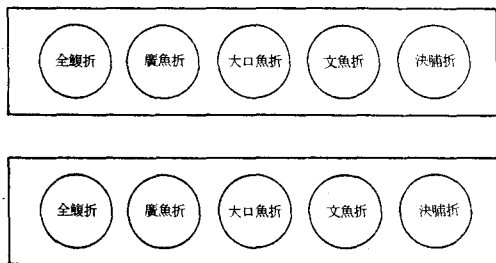


圖 2. 1866年 王嘉禮에서의 同牢宴 四方盤 2床(朱紅大四方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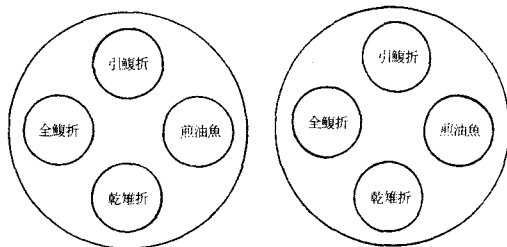


圖 3. 1866年 王嘉禮에서의 同牢宴 中圓盤2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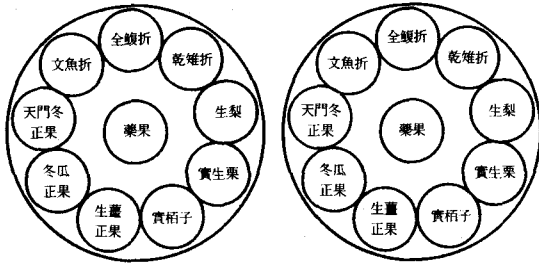


圖 4. 1866年 王嘉禮에서의 同牢宴 果盤2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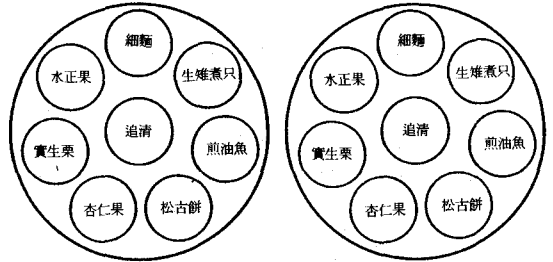


圖 6. 1866年 王嘉禮에서의 同牢宴 二味2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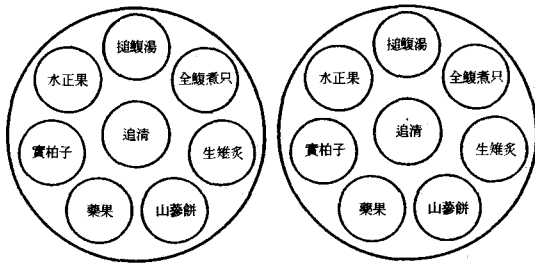


圖 5. 1866年 王嘉禮에서의 同牢宴 初味2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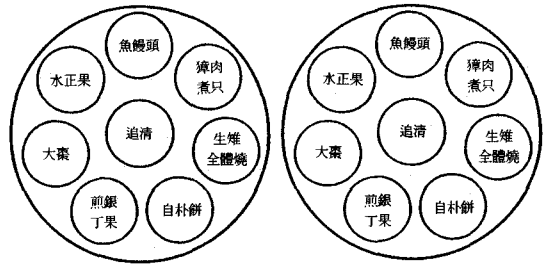


圖 7. 1866年 王嘉禮에서의 同牢宴 三味2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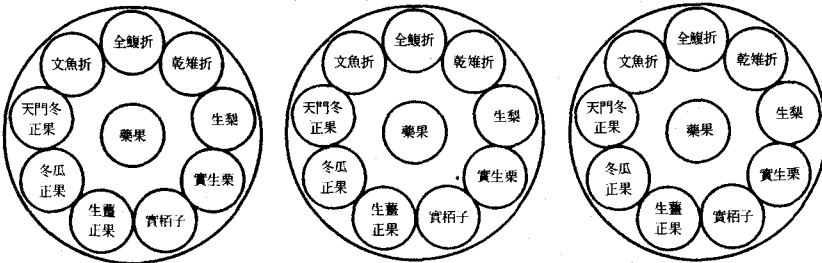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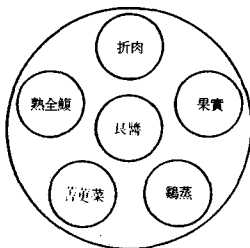


圖 8. 1866年 王嘉禮에서의 三殿朝見禮 所用의 果盤3床과 假脩脯 3盤

(小小四方盤)



	納采時	正副使	都監	堂郎	官主人	承旨
納采時	55名,	〃	〃	〃	〃	〃
納徵時	57名,	〃	〃	〃	〃	〃
告期時	53名,	〃	〃	〃	〃	〃
冊妃時	53名,	〃	〃	〃	〃	〃
合	218名,					

여분 4名

$(55+1) + (57+1) + (53+1) + (53+1) = 222$ 床

\* 香醞酒 218명에게 1杯씩, 宣醞承旨出來거행

圖 9. 1866年 王嘉禮에서의 嘉禮教是時外 宣醞床 222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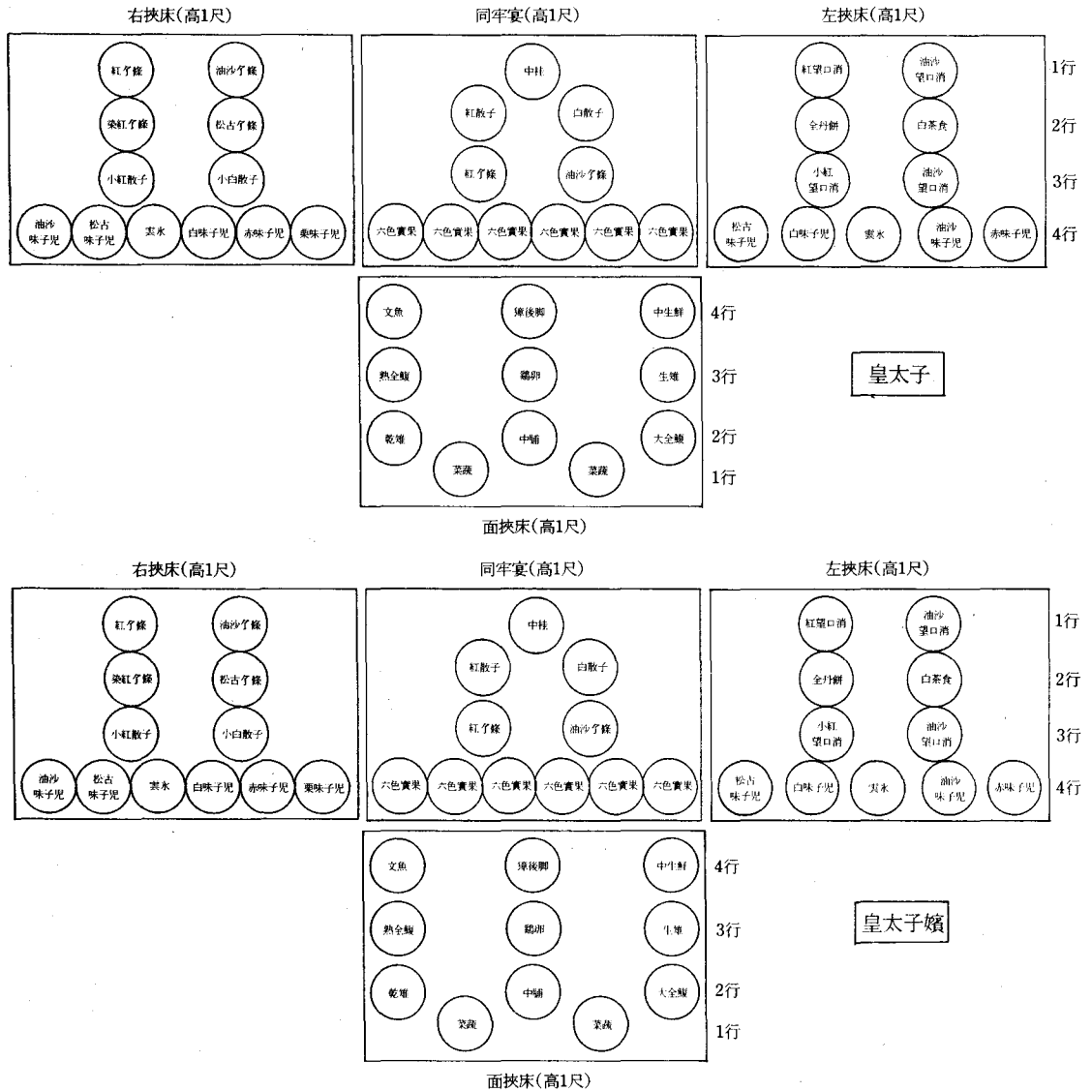


圖 10. 1906年 皇太子嘉禮에서의 宴床, 左挾床, 右挾床, 面挾床(同牢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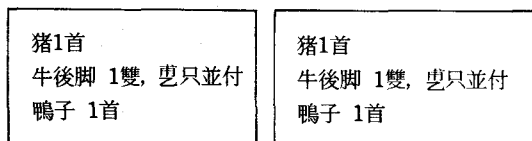


圖 11. 1906年 皇太子嘉禮에서의 同牢宴 大膳2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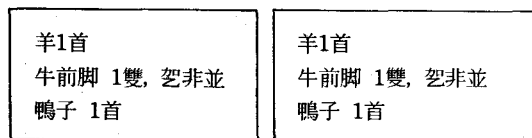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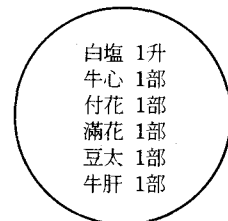


圖 12. 1906年 皇太子嘉禮에서의 同牢宴 小膳2床



唐朱紅漆大盤 2竹  
唐朱紅漆小盤 1竹  
鍤貼匙 2立 } 에 담는다

圖 13. 1906年 皇太子嘉禮에서의 大小膳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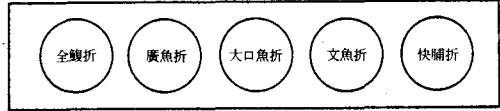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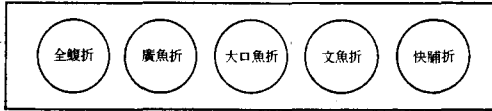


圖 14. 1906年 皇太子嘉禮에서의 同牢宴 四方盤2床(高1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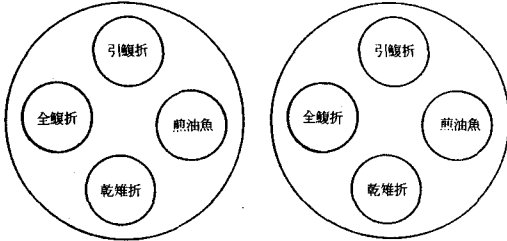


圖 15. 1906年 황태자가례에서의 中圓盤2床(高1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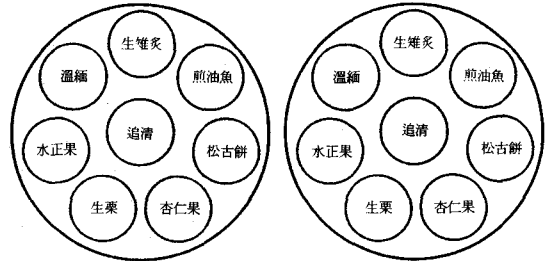


圖 18. 1906年 황태자가례에서의 同牢宴 二味2床(高1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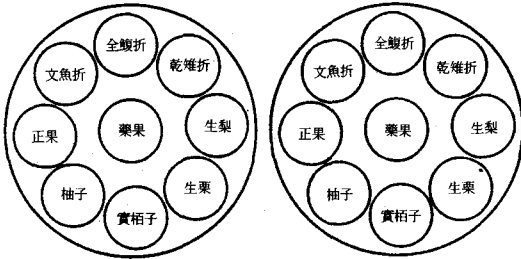


圖 16. 1906年 皇太子嘉禮에서의 同牢宴 果盤 4床(高1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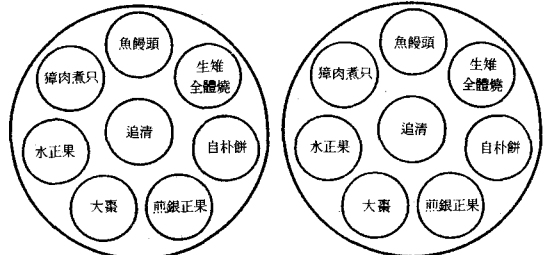


圖 19. 1906年 황태자가례에서의 同牢宴 三味2床(高1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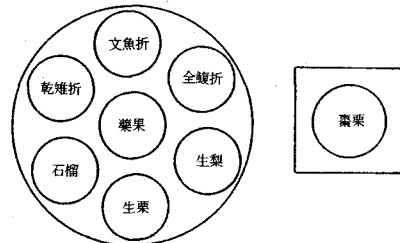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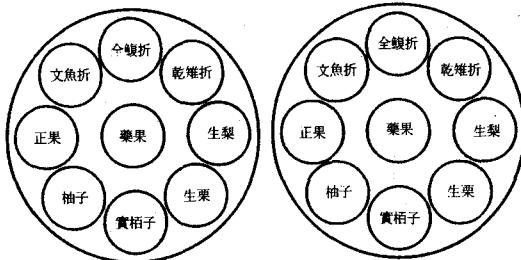


圖 20. 1906年 皇太子嘉禮에서의 황제 朝見禮所用의 果盤1床(高1尺)과 棗栗盤1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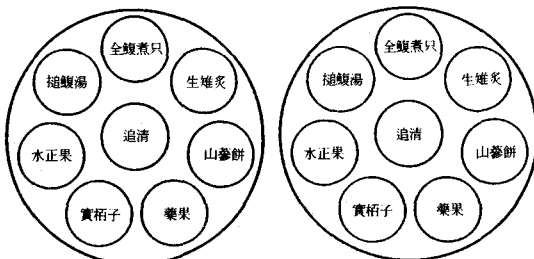


圖 17. 1906年 황태자가례에서의 同牢宴 初味2床(高1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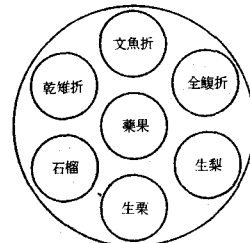


圖 21. 1906年 皇太子嘉禮에서의 황태자비 拜位果盤1床(高1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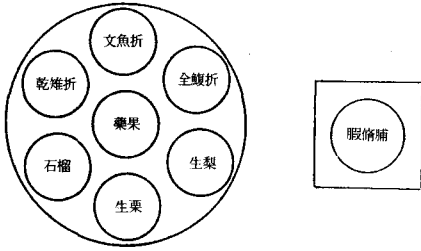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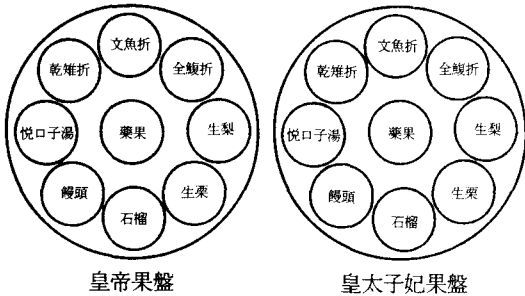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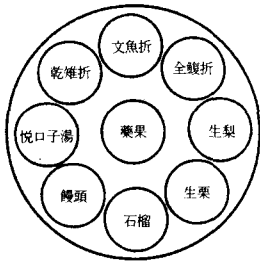


圖 22. 1906年 皇太子嘉禮에서의 景孝殿朝見禮所用의 果盤1床(高1尺)과 脰脩脯盤1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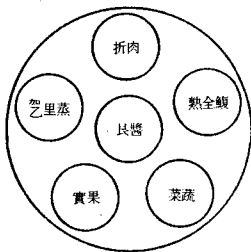
皇帝果盤

皇太子妃果盤



景孝殿果盤

圖 23. 1906年 皇太子嘉禮에서의 盥饋時 所用의 果盤 3床(高1尺)



納采問名時	55名,	正副使	都監	堂郎	官主人	禾必書丞
納吉時	54名,	〃	〃	〃	〃	〃
納徵時	58名,	〃	〃	〃	〃	〃
告期時	55名,	〃	〃	〃	〃	〃
冊妃時	218名,	〃	〃	〃	〃	〃
합 440名,		여분 10名				

$(55+2) + (54+2) + (58+2) + (55+2) = (218+2) = 450$ 床

\* 香醞酒 440명에게 1盃씩, 宣醞秘書承出來거행

圖 24. 1906年 皇太子嘉禮에서의 嘉禮孝是時外 宣醞床 450床(高3寸)

IV. 1651년부터 1906년까지의 嘉禮床의 饌品과 찬품 비교

表 1은 1651년부터 1906년까지의 嘉禮 同牢宴 찬품이며, 表 2는 朝見禮와 가례교시시 외의 찬품이다. 1749년의 찬품은 「御製國婚定例」에 제시된 것이고, 1866년의 찬품은 왕가례시의 것이며, 그밖의 1651년, 1696년, 1744년, 1819년, 1906년의 찬품은 왕세자 가례시의 것이다. 유밀과 다식 실과를 중심으로 한 宴床, 左挾床, 右挾床과<sup>12)</sup> 채소, 숙육, 마른찬, 전유어를 중심으로한 面挾床을<sup>13)</sup> 보면, 左挾床에서 添水는 1651년에만 올려졌음을 알 수 있고, 面挾床에서는 生鴈(산기러기), 鳩子(비둘기), 小雀(참새), 乾沙魚(건상어)는 1651년, 1696년, 1744년에만 올려진 찬품으로, 1749년 이후에는 올려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1906년에는 實山蔘 대신 實沙蔘이 사용된 것도 특징이다. 즉 沙蔘은 1906년에만 사용되었다. 그밖의 찬품은 큰 400년간이나 변함없이 宴床, 右挾床, 左挾床, 面挾床에 올려졌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大膳과 小膳은 1819년과 1906년에만 보여주고 있고, 그밖에 四方盤 中圓盤 果盤 初味 二味 三味는 1749년을 기점으로 하여 올려진 床이다. 大膳에서는 猪 牛後脚 鴨子, 小膳에서는 羊 牛前脚 鴨子로서 이루어진 熟肉<sup>14)</sup>이 1819년과 1906년의 찬품이며, 四方盤에서는 文魚折 大口魚折이 1749년부터 등장하고 있고 廣魚折과 快脯折은 1819년부터, 全鰻折은 1866년부터 올려졌다. 1749년부터 등장한 中圓盤은 乾雉折, 引鰻折, 煎油魚, 全鰻折이 1906년까지 올려졌는데, 中圓盤과 四方盤과의 찬품의 차이는 중원반은 鰻折과 煎油魚, 乾雉折 등 찬품의 다양화를 보이는 반면 사방반은 文魚折과 大口魚折 등 마른찬을 중심으로 한 점이다.

마른찬 약과, 과일, 정과로 구성된 果盤은 1749년

12) 金尚寶, 李盛雨, Vol. 5, No. 1, 1990.  
13) 上同  
14) 金尚寶, 李盛雨, Vol. 6, No. 1, 1991.

表 1. 1651년부터 1906년까지의 嘉禮同牢宴 饌品비교

		1651 <sup>1</sup>	1696 <sup>1</sup>	1744 <sup>1</sup>	1749 <sup>2</sup>	1819 <sup>1</sup>	1866 <sup>3</sup>	1906 <sup>1</sup>								
		1651 <sup>1</sup>	1696 <sup>1</sup>	1744 <sup>1</sup>	1749 <sup>2</sup>	1819 <sup>1</sup>	1866 <sup>3</sup>	1906 <sup>1</sup>	1651 <sup>1</sup>	1696 <sup>1</sup>	1744 <sup>1</sup>	1749 <sup>2</sup>	1819 <sup>3</sup>	1866 <sup>3</sup>	1906 <sup>1</sup>	
同牢宴	宴床	○	○	○	○	○	○	○								
	中朴桂	○	○	○	○	○	○	○	牛前脚					○		○
	紅散子	○	○	○	○	○	○	○	鴨子					○		○
	白散子	○	○	○	○	○	○	○	四方盤				○	○	○	○
	紅了條	○	○	○	○	○	○	○	全鰻折						○	○
	油沙了條	○	○	○	○	○	○	○	廣魚折					○	○	○
	六色實果	○	○	○	○	○	○	○	文魚折				○	○	○	○
	左挾床	○	○	○	○	○	○	○	大口魚折				○	○	○	○
	紅望口消	○	○	○	○	○	○	○	快脯折					○	○	○
	油沙望口消	○	○	○	○	○	○	○	中圓盤				○	○	○	○
	全丹餅	○	○	○	○	○	○	○	乾雉折					○	○	○
	白茶食	○	○	○	○	○	○	○	引鰻折					○	○	○
	小紅望口消	○	○	○	○	○	○	○	煎油魚					○	○	○
	油沙小望口消	○	○	○	○	○	○	○	全鰻折					○	○	○
	赤珠子兒	○	○	○	○	○	○	○	果盤					○	○	○
	油沙珠子兒	○	○	○	○	○	○	○	文魚折					○	○	○
	添水	○	○	○	○	○	○	○	全鰻折					○	○	○
	雲水	○	○	○	○	○	○	○	乾雉折					○	○	○
	白珠子兒	○	○	○	○	○	○	○	藥果					○	○	○
	松古珠子兒	○	○	○	○	○	○	○	實栢子					○	○	○
右挾床								生梨					○	○	○	
紅了條	○	○	○	○	○	○	○	實生栗					○	○	○	
油沙了條	○	○	○	○	○	○	○	石榴					○	○	○	
梁紅了條	○	○	○	○	○	○	○	乾正果					○	○	○	
松古了條	○	○	○	○	○	○	○	冬瓜正果					○	○	○	
白散子	○	○	○	○	○	○	○	天門冬正果					○	○	○	
小紅散子	○	○	○	○	○	○	○	生薑正果					○	○	○	
松古珠子兒	○	○	○	○	○	○	○	蓮根木瓜正果					○	○	○	
栗珠子兒	○	○	○	○	○	○	○	山查, 乾葡萄正果							○	
雲水	○	○	○	○	○	○	○	瓜菴, 青梅, 苦苣							○	
白珠子兒	○	○	○	○	○	○	○	正果							○	
油沙珠子兒	○	○	○	○	○	○	○	袖子							○	
赤珠子兒	○	○	○	○	○	○	○	初味					○	○	○	
面挾床								槲鱈湯					○	○	○	
實山蔘	○	○	○	○	○	○	○	生雉炙					○	○	○	
實苦蕒	○	○	○	○	○	○	○	追清					○	○	○	
菁根	○	○	○	○	○	○	○	山蔘餅					○	○	○	
冬瓜	○	○	○	○	○	○	○	實栢子					○	○	○	
水芹	○	○	○	○	○	○	○	水正果					○	○	○	
生薑	○	○	○	○	○	○	○	全鰻煮只					○	○	○	
生芋	○	○	○	○	○	○	○	生梨					○	○	○	
中脯	○	○	○	○	○	○	○	藥果					○	○	○	
大全鰻	○	○	○	○	○	○	○	二味					○	○	○	
乾文魚	○	○	○	○	○	○	○	細緬					○	○	○	
乾沙魚	○	○	○	○	○	○	○	溫緬					○	○	○	
乾雉	○	○	○	○	○	○	○	煎油魚					○	○	○	
生鴈	○	○	○	○	○	○	○	松古餅					○	○	○	
鷄兒	○	○	○	○	○	○	○	實生栗					○	○	○	
鷄卵	○	○	○	○	○	○	○	水正果					○	○	○	
生雉	○	○	○	○	○	○	○	追清					○	○	○	
熟全鰻	○	○	○	○	○	○	○	生雉煮只					○	○	○	
鴨子	○	○	○	○	○	○	○	杏仁果					○	○	○	
障後脚	○	○	○	○	○	○	○	黃栗					○	○	○	
中生鮮	○	○	○	○	○	○	○	生雉炙					○	○	○	
鳩子	○	○	○	○	○	○	○	三味					○	○	○	
小雀	○	○	○	○	○	○	○	魚饅頭					○	○	○	
實沙蔘							○	自朴餅					○	○	○	
大膳							○	生雉全體饗					○	○	○	
猪							○	大栗					○	○	○	
牛後脚							○	水正果					○	○	○	
鴨子							○	追清					○	○	○	
小膳							○	山藥菜					○	○	○	
羊							○	障肉煮只					○	○	○	
							○	煎銀正果					○	○	○	



表 2. 1651년부터 1906년까지의 嘉禮時의 찬품비교

	1651 <sup>1</sup>	1696 <sup>1</sup>	1744 <sup>1</sup>	1749 <sup>2</sup>	1819 <sup>1</sup>	1866 <sup>3</sup>	1906 <sup>1</sup>
*鹽 饋 時	果盤						○
	藥果						○
	乾雉折						○
	文魚折						○
	全鰻折						○
	生梨						○
	生栗						○
	石榴						○
	饅頭						○
	悅口子湯						○
朝 見 禮	果盤			○	○	○	○
	文魚折			○	○	○	○
	全鰻折			○	○	○	○
	乾雉折			○	○	○	○
	乾正果				○		
	藥果			○	○	○	○
	生梨			○	○	○	○
	實栝子				○	○	
	實生栗			○	○	○	○
	石榴			○			○
宣 醞 床	生薑正果					○	
	冬瓜正瓜					○	
	天門冬正果					○	
	棗栗盤			○	○		○
	脥脩脯盤			○	○	○	○
	折肉				○	○	○
	實果				○	○	○
	熟全鰻				○	○	○
	鷄蒸				○	○	○
	菜				○	○	○
良醬				○	○	○	
香醞酒				○	○	○	
芻里蒸						○	
苦蕒菜						○	

특징이며, 또한 柚子가 1906년에만 올려졌다.

추복당, 산삼병, 실백자, 수정과, 追淸을 중심으로 구성된 初味는 찬품이 시대별로 거의 같으나 生梨가 1749년을 제외하고는 올려지지 않았다. 細糲, 전유어, 송고병, 生栗 또는 黃栗, 수정과, 追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二味 역시 거의 같으나 1906년에는 세면 대신에 온면이 올랐으며 生雉炙이 1906년에만 올려졌다. 어만두, 자박병, 생치전체소 또는 장육자기 大棗, 水正果, 追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三味도 찬품이 시대별로 거의 비슷하나 산약채가 1749년을 제외하고는 올려지지 않았으며, 煎銀正果는 1749년, 1866년, 1906년에 각각 올랐다. 前術한 바와 같이<sup>15)</sup> 初味는 추복당, 산삼병, 잣, 수정과를, 二味는 면, 전유어, 송고병, 밤, 수정과를, 三味를 어만두, 자박병, 생치전체소, 대추, 수정과를 중심으로 차려진 상차림이다.

表 2에는 1906년에 鹽饋時에 올린 果盤이 등장하는데, 鹽饋(관궐)란 글자그대로 嬪이 시아버님이신 高宗皇帝께 처음으로 올리는 '세수대야와 진지를 가르키는 것으로, 관궐시 올린 果盤의 찬품은 同牢宴果盤 찬품에는 보이지 않는 만두와 열구자탕이 있는 반면에 正果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果盤, 棗栗盤, 脥脩脯盤으로 구성된 조현례시의 상차림은 1749년 이후에 보이는데 이중 과반의 찬품은 文魚折, 全鰻折, 乾雉折, 藥果, 生梨, 實生栗 등을 중심으로 한결같이 차려졌고, 생강정과, 동아정과, 친문동정과 1866년에만 올려진 찬품이었다.

嘉禮敎是時 外인 納采, 納吉, 納微, 告期, 冊妃 또는 冊嬪 時에 正副使, 都監, 堂朗, 官主人, 承旨 등에게 올렸던 宣醞床은 1819년에 109床,<sup>16)</sup> 1866년에 222床, 1906년에 450床이다. 따라서 宣醞床의 수자만으로도 1906년의 가례의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上記한 환경적, 시대적 요인의 작용이다. 선운상의 찬품은 折肉, 實果, 熟全鰻, 菜, 鷄蒸 또는 芻里蒸, 良醬, 香醞酒로서 이 床의 찬품 또한 시대별로 일정하였다.

V. 맺는말

이후부터 그 찬품이 거의 같으나, 1749년, 1819년, 1866년에는 冬瓜正果, 天門冬正果, 生薑正果가 果盤의 正果를 구성하였으나 1906년에는 蓮根, 木瓜, 山查, 乾葡萄, 瓜萹, 毒梅, 苦蕒 등의 재료로서 正果를 만든 것이

嘉禮都監儀軌를 통하여 1866년과 1906년의 혼례상차림을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분석 究明하고 이것으로 이미 보고한 1651년부터 1819년까지의 궁중 혼례상차림과 비교 검토하여 그 흐름을 究明한 결과는

15) 상동  
16) 金尚寶, 李盛雨, Vol. 6, No. 1, 1991.  
① 王世子嘉禮時의 饋品  
② 御製國婚定例에 제시된 饋品  
③ 王嘉禮時의 饋品

\*鹽饋(관궐): 鹽: 대야 "관", 낮빚을 "관", 손빚을 "관"  
饋: 진지올릴 "궐", 饋人: 궁중에서 임금의 식사를 맡아보던 사람

다음과 같다.

1. 1866年 高宗 明成后的 王嘉禮의 상차림은 1749년에 제정한 「御製國婚定例」의 王嘉禮 同牢宴 所用 상차림과 같다.
2. 1906年 純宗 純宗妃의 皇太子嘉禮의 상차림은 「御製國婚定例」의 王世子嘉禮 所用 상차림에 준하지 않고 상차림의 다양화와 큰 규모가 특징이다.
3. 宴床, 左挾床, 右挾床의 饌品은 1651년부터 1906년까지 일정하였으나, 左挾床의 찬품 중 添水는 1651년 이후로는 올려지지 않았고, 面挾床의 찬품 중 生鴈, 鳩子, 小雀, 乾沙魚는 1744년 이후에는 올려지지 않았다.
4. 大膳과 小膳은 1819년과 1906년에만 보여주고 있고, 이들 床의 찬품은 일정하였다.
5. 四方盤, 中圓盤, 果盤, 初味, 二味, 三味는 1749년의 「御製國婚定例」 이후부터 1906년까지 올려진 상으로, 이들 상의 찬품은 대체로 일정하였다.
6. 1906年 嘉禮時에만 등장하는 床으로서 盥饋時의 果盤이 있다.

7. 朝見禮時의 果盤, 暇脩脯盤, 棗栗盤은 1749年 이후부터 1906년까지 올려진 상으로 이들 상의 찬품은 대체로 일정하였다.

8. 宣醞床은 1819년에 109床, 1866년에 222床, 1906년에 450床이 올려졌으며, 이상의 찬품도 대체로 일정하였다.

### 참고문헌

1. 李盛雨, 朝鮮王朝嘉禮食儀軌, 미원문화재단, 1989.
2. 金尚寶, 李盛雨,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1600年代의 宮中嘉禮床차림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5, No. 1, 1990.
3. 金尚寶, 李盛雨,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朝鮮王朝宮中嘉禮床차림考,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6, No. 1, 1991.
4. 金尚寶, 李盛雨, 御製國婚定例에 대한 分析的 研究, 韓國食文化學會誌, Vol. 5, No. 2, 1990.
5. 璿源寶鑑編纂委員會, 璿源寶鑑 III, 啓明社, 1989.
6. 金命吉, 李王家と樂善齋, 中央日報.
7. 張三植, 大漢韓辭典, 進賢書館, 1982.